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일본, 농림수산성, 유전자 변형, 표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일본, 농림수산성, 유전자 변형, 표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8. 1.
일본,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 수입 제한 조치

2017. 1. 2.
일본,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검토

2017. 1. 16.
일본, 소비자 단체 엄격한 GMO 라벨링 표시요구

핵심이슈 도출

"일본,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 검토중"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의무화 검토중

지난 1월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든 유전자 변형 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8가지 유전자 변형 작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33가지 식품 품목에 대해 유전자 변형 성분이 함유된 경우 유전자 변형 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GMO가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해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GMO 성분 의무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량과 유전자 변형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일본은 옥수수 1,180만 톤, 대두 2,330만 톤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지만 이 중 9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함유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본 소비자 단체는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소비자청은 일본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 업계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패널을 모집하여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 GMO 표시 의무 대상을 '5위 이내·3%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완성품에 성분이 남지 않은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유전자 변형 표기가 의무화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성분을 함유한 식품 수출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GMO 성분 표기를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GMO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향후 일본 정부의 GMO 표시 정책의 변동사항을 주목하여 수출 제품 패키지 및 라벨링 수정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